

시연(施連) 칼럼

조선의 백이숙제伯夷叔齊로 추양 받았던 송고공松臯公과 태종의 애증愛憎 30년



권오신
칼럼니스트, 안동권씨문화재단공파총회장

심 대결 양상 같았다.

태종은 새해 들어 순금사에 구금된 송고(松臯) 선조를 풀어주고 조선왕조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이라 할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에 임명하는 네 번 째 교지를 내린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태종 임금은 성균관대사성에도 꿈쩍 않는 송고(松臯) 선조에게 북백(北伯, 학경도관찰사)을 내린 이후로는 더는 벼슬이 내리지 않았다.

송고(松臯) 선조가 태종 임금보다 서너 살쯤 먼저 태어났으니 두 분이 50을 넘긴데다 재위 17년 만에 상왕(上王)으로 물러날 시기여서 더는 승지가 교지를 갖고 예천까지 내려오는 일을 볼 수 없게 됐다.

태종은 세수 55살에 승하했다. 보서(譜書)에 기록이 없으나 송고(松臯) 선조 역시 50대 후반 들어 서세(逝世)하신 것으로 추정된다.

성균관대사성, 북백(北伯, 정이품正二品) 등 내리 다섯 차례나 거절한 송고(松臯) 선조의 기절(氣節, 기개와 절조)도 기절(氣節)이지만 인재를 아끼는 마음이 얼마나 커인지 두 대에 걸쳐 은거 중인 신하를 조정에 모시려 한 태종도 일세를 풍미한 치도(治道)의 정신을 가진 군주였다.

일설엔 이태조와 태종이 개국 초기 치열했던 변절의 논리를 잠재우기 위해 당시 려만 신하로서는 학식이 높고 벼슬이 상위에 있었던 송고(松臯) 선조를 끌어들일 생각이었다고 한다.

이런 송고(松臯) 선조를 두고 당시 조선의 유림들은 해동(海東)의 백이(伯夷)와 숙제(叔齊)라고 칭송했다.

호(號)는 송고(松臯), 諱(晦, 이름)은 초(軺)다. 고려후기 감찰규정(監察糾正)이었던 문정공(文靖公) 휴(休) 희정(希正), 후일 조선 세종 때 좌의정으로 추증(推贈)과 정경부인(貞敬夫人)이신 언양김씨(彦陽金氏, 부(父) 휴(休) 가기(嘉基), 상봉대부(尙奉大夫) 판도총량(版圖掌量) 김해부사(金海府使) 사이에서 여섯째 아드님으로 태어나셨다.

셋째 형 문경공(文景公, 휴(休) 진(珍), 고려 우왕 3년 1377년 문과급제, 조선 세종 때 좌의정)이 고려 공민왕 6년(1357)에 태어났으니 두 살 터울로 치면 1363년 어간 낙동강 두 물길이 모이는 안동 동문 밖 송천(松川)이나 부친(父親) 문정공(文靖公) 휴(休) 희정(希正) 고려 말 관직이 왜구의 출몰이 잦았던 의창현(義昌縣)이었던 거로 보면 품계 차를 알 수 있다.

당시 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이었던 이성계(李成桂)는 “진(珍)이 의창현령(義昌縣令)이 되어서 남해 지역에 출몰한 왜구를 소탕하고 생업을 잊은 백성들을 진휼(賑恤, 흉년에 든 백성을 도와줌)하니 선정의 명성이 자자하다. 내 고향 전주가 백성이 많고 일이 번다하여 명석한 사대부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전주 판관(判官, 종오품從五品)으로 발탁(抜擢)했다고 고려사에 기록돼 있다.

선조 송고(松臯)은 맘형 판도공(版圖公, 휴(休) 국(穀), 경산현령(慶山縣令)과 둘째 형 감사공(監司, 휴(休) 여(여)도(여도(與道) 셋째 형(文經公文景公 휴(休) 진(珍))보

시고 책장에 빈틈이 없도록 중국에서 가져온 서책을 채워 주셨다고 전해진다.

조립동 선비로 이름이 났다. 송고공 선조는 학문에 뜻을 둘 나이, 지학(志學, 15살)에 성균 생원(生員)이 되었으며 고려에서 어렵기로 이름난 문과급제를 약관 이전 나이에, 요즘으로 치면 소년 급제를 하셨다.

고려 32대 우왕(禇王, 1377) 20살에 급제를 한 셋째 형 문경공(文景公)에 이어 소년급제로 고향 안동 땅은 개경과 서경(西京, 평양), 동경(東京, 경주)에서 송고 선조를 보려거나 책걸이를 얻으러 온 이들로 줄을 이었다고 한다.

셋째 형에 이어 소년 급제를 했으니 고려의 호족 사회를 놀라게 한 것은 당연하다. 송고 선조를 비롯 셋째 형 문경공(文景公, 휴(休) 진(珍), 우왕 3년 1377년 급제)이 20살에, 둘째 형(休(休), 여(여)도(與道) 감사(監司), 급제 추정) 등 일곱 형제 중 삼형제가 급제를 하고 세 딸 역시 명문가로 출가, 당시 안동에서는 문정공(文靖公)집을 통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고 했다.



증조부(曾祖父, 휴(休) 혁(赫))의 동생(休(休) 견(堅)) 집에서도 문과급제자와 판도상서(判圖尚書, 휴(休) 공신(公信)에) 출사하는 등 한 시대를 풍미하는 사대부 가의 명성을 얻었으며 특히 뛰어난 외손이 난다 해서 최고 혼처로 뽑혔다.

고려 32대 우왕(禇王, 1377~1388)의 부름을 받아 고려 육부(六部)에 가장 먼저 밭을 들여놓고 높은 관직에 오른 분도 송고 선조였다. 이같은 사실은 조선 세종 때 좌의정이었던 셋째 형 문경공(文景公, 휴(休) 진(珍))의 고려 말 관직이 왜구의 출몰이 잦았던 의창현(義昌縣)이었던 거로 보면 품계 차를 알 수 있다.

당시 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이었던 이성계(李成桂)는 “진(珍)이 의창현령(義昌縣令)이 되어서 남해 지역에 출몰한 왜구를 소탕하고 생업을 잊은 백

성들을 진휼(賑恤, 흉년에 든 백성을 도와줌)하니 선정의 명성이 자자하다. 내 고향 전주가 백성이 많고 일이 번다하여 명석한 사대부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전주 판관(判官, 종오품從五品)으로 발탁(抜擢)했다고 고려사에 기록돼 있다.

선조 송고(松臯)은 맘형 판도공(版圖公, 휴(休) 국(穀), 경산현령(慶山縣令)과 둘째 형 감사공(監司, 휴(休) 여(여)도(與道) 셋째 형(文經公文景公 휴(休) 진(珍))보

다 고려 육부에서 학문과 재능을 겸비한 벼슬살이로 고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34대 공양왕(恭讓王, 신종神宗의 7세손) 때는 고려 관직의 수장 품계인 판제용감사(判濟用監事)에 이르렀다.

송고공의 이같은 벼슬길은 고려말을 뛰어넘지 못하고 부리진다.

이때가 안타깝게도 서른 살을 막 넘겼을 시기다. 우왕(禇王, 14년 1388) 위화도(威化島) 회군을 단행한 이성계(李成桂)는 공양왕(恭讓王)이 재위한 첫해(1389)부터 칼을 차고 신을 신은 채 전상(殿上)에 올랐으니 고려말(高麗末, 1392년)까지 이름뿐인 왕으로 재위(在位)하는 것을 직접 지켜보셨다.

수창궁(壽昌宮)에서 그해 7월 12일 고려 국새(國璽)를 백관에게 넘기고 강원도 원주로 유배될 즈음 송도(松都)를 떠나셨다.

매부(妹夫) 백죽당공(柏竹堂公, 배상지(裴相智)과 큰 형 판도공(判圖公)에게 <신기神器, 임금의 자리>) 가 이미 옮겨갔으니 마땅히 은둔할 뿐이다. <신기기 이神器既移 아베당둔我輩當遷>이란 이 한마디를 남기고 남행길에 올라 예천에서 멈춘 것이 자신의 생을 놓는 땅이 됐다.

송고 선조가 기절(氣節, 기개와 절조)을 지키고 살았던 마을 이름이 지금껏 절동(節洞)이라 부르는 것도 기절(氣節)을 지키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고려 우왕 14년(1388) 위화도 회군을 단행한 이성계와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벼슬자리를 물려났던 고려의 절신(72현이 경기도 강덕산(廣德山) 두문동(杜門洞)을 선택했을 시기보다 빨랐다.

두문동의 반대 길인 경상도 예천 대죽리를 선택한 것만이 틀림 뿐이다.

송고 선조의 지조론(志操論, 원칙과 의지를 끌까지 급하지 않는 절개)과 달리 반대 길을 걸었던 황희(黃喜, 1363~1452, 1389년 급제)와는 극명하게 갈리진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동갑내기 황희의 고려 말 관직은 별장(7품정 7品正七品)이어서 판제용감사(판제용감사)였던 송고 선조보다 한참이나 떨어졌다.

개풍군 광덕산 서쪽 부조현(不朝峴) 고갯길에서 조복을 벗어 던진 고려 유생 72명의 선택과는 달리 한 번의 변절로 려대(麗代)의 말직서 정승의 반열까지 올랐다.

30살을 막 넘긴 젊은 나이에 셋째 형 문경공(文景公)이나 황희(黃喜)보다 무려 100여 단계나 높은 관직을 가졌던 송고 선조는 이때부터 경세가(經世家,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 대학자(大學者), 문장가(文章家)의 삶을 끌고 나고 철철한 은기의 삶이 시작됐다. 살아생전에 피아골길 산마루에서 한 발짝도 나서지 않았다.

사약(賜藥)이 언제 배달될지를 모르는 절박한 세월 속에서도 이신벌군(以臣伐君, 신하가 임금을 치는 행위)을 불의로 보고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정신을 놓지 못했다. 고려 문하시중(門下侍中, 휴(休) 용일用一)으로 이어졌던 가문(家門)의 벼슬길은 절로 닫혀 버렸다.



노봉서원 추향

충민공(忠愍公) 권산해(權山海, 조선 6대 임금 단종의 이모부)와 갈산공(葛山公)을 배향하는 예천 노봉서원(魯峯書院) 추향이 10월 31일 낮 영주 안동 예천 지역 유림과 후손 30여 명이 참석, 엄숙하게 봉행됐다.

이날 헌관은 예천 유림 이성호(李成鎬) 장사언(張師彦) 신동영(申東英)씨가, 집례(執禮)엔 영주 유림 박현서(朴憲執)씨가, 축(祝)은 안동 유림 박동균(朴東均)씨가 맡았다.

권오신 좌윤공파총회장

문하시중(門下侍中, 휴(休) 용일用一)과 문정공(文靖公, 휴(休) 희정希正) 선조가 후원했던 개경의 영남 학맥들도 두 동강이나 불사이군(不事二君)과 개국(開國) 파로 갈라져 영육(榮辱)이 교차 되는 곳이 됐다. 조선 개국 초기의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이끌 인재를 찾던 이태조와 태종은 두문동 72현 대신 예천 염송산에서 은거 중이었던 송고공을 선택했지만 고려를 끝내 놓지 못했다.

이를 두고 인재를 아낀 이태조와 태종 임금의 간절한 마음이나 생목숨을 걸고 거절한 송고 선조의 마음이 한치도 어긋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인(後人, 후세의 사람)들이 평가하고 조선의 백이 숙제라고 불렀다.

고려를 향한 송고공의 대쪽 정신은 조선에 들어서 별처럼 더 빛나게 되고 벼슬을 탐하는 무리에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가 살아 있는 전설이 됐다.

고려의 절신(絕臣)으로 남아서 천년을 빛낸 명성을 얻었다. 염송산(廉松山)을 송도(松都, 개성의 옛 이름)를 그리워하고 생각한다는 뜻으로 염송산(念松山)이라 고쳐 부르며 그곳에서 일생을 마쳤다.

후일 송고 선조의 기절(氣節, 기개와 절조)은 만손자이었던 죽임공(竹林公, 휴(休) 산해山海)에게 이어졌다. 송고 선조께서 개경과 피아골 은거 시절 행장과 문집이 전해지지 않는 게 천주의 한(恨)이다. 단종 복위가 실패하던 날, 죽임공(竹林公)이 스스로 생목숨을 끊은 날, 정경부인(貞敬夫人)이 집에 보관했던 서지(書誌)나 유물을 불태워 버려 단종을 따랐던 절신들을 살릴 즈음 동생(사정공司正公)과 셋째 아들(판관공判官公)이 유배지로 떠났다.

송고공의 일곱 형제의 후손들 역시 예천, 경주, 안동, 영주, 강원도 원주 등에서 흩어져 살게 됐지만 나라가 위태로워지면 늘 생목숨을 내놓았다. 임진왜란 때 일곱 명의 의병장이 나와 영남좌도 72개 마을을 지켰다. 실제로 한 종종에서 일곱 명의 의병장이 나기는 외침이 잦았던 우리 역사에 처음이었다.



부부한의원

— 정성과 친절로 모시겠습니다 —

한방진료과목

침구과 / 한방내과 / 한방소아과 / 한방부인과
한방신경정신과 /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재활의학과 / 사상체질의학과

특수클리닉

통증클리닉 / 비만클리닉 / 보약클리닉
비염클리닉 / 아토피클리닉 / 화상클리닉
봉침·약침 / 자동차보험·산재보험

진료시간

평일 : 오전9시~오후6시30분
토요일 : 오전9시~오후2시
일·공휴일 : 휴진
점심시간 : 오후1~2시



원장 권 일·김 미 경
(안동권씨 복야공파 36대)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 56길 15 동일상가 A 1층
(둔촌동역 4번출구에서 약 50m 둔촌시장안쪽)
Tel : 02-485-1075 (한방치료)

45년 부동산 경험과 바탕으로
투자 상담을 성실히 도와드겠습니다.

10년 후
돈버는 부동산은
여기?

임대 절대 실패하지 않는
상가투자법

대표 권기영(혁영)
基英 氏
安東權氏大宗會
永登浦昌人敎會
한국마술연맹
基英 氏
安東權氏大宗會
永登浦昌人敎會
한국마술연맹

은퇴자가
투자하면 안되는
부동산 5가지

2020부동산경기전망과 시장흐름 예측
부동산 투자는
타이밍의 선택!
저점과 고점을
찾아라

약국·상가 전문
영등포타운 부동산중개사무소
010. 9057. 1577
전화 : (02) 783-1577 FAX : 0505-991-1900
E-mail : mjaehdud1577@naver.com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894(신길역 3번출구)